

제 5 회 유 럽 성균 한글 백 일 장

접수번호: 2021-EUS0866

한글 성명: 하사노바 제르베임.

“한 국 과 나 의 인 연”

한 국 과 나 는 인 연 이 깊 문 가 봐 요 .

지 리 수 업 때 외 에 는 한 국 이 라 는 이

름 을 듣 지 못 하 다 가 중 학 교 때 한 국

대 중 문 화 를 통 해 한 국 에 대 해 알 게 되

었 다 . 케이 팝 을 들 을 수 록 , 드 라 마 를 볼 수

록 한 국 어 는 나 에 게 감 미 록 게 들 리 기

시 작 했 다 . 그 런 데 그 때 는 한 국 어 를 배 우

고 싶 은 생 각 을 한 번 도 해 본 적 은

없 었 다 . 하 지 만 어느 날 공 원 에서 한 국

인 관 광 객 들 과 만 났 다 . 한 국 어 를 할 줄

몰 라 서 영 어 로 이 야 기 했 지 만 한 국 어 로 “

안 념 하 세 요 , 감 사 합 니 다 ” 라 고 했 을 때

아 저 씨 와 아 주 머 니 의 반 응 문 귀 장 히 좋

았 다 . 아 저 씨 와 아 주 머 니 께 서 나 를 칭 찬

해 주 셔 서 정 말 행 복 했 다 . 항상 이 렇 게

행 복 하 게 살 고 싶 어 서 나 는 한 국 학 을

전 공 하 기 로 마 음 을 먹 었 다 . 그 런 데 한 국

학 을 공 부 하 게 된 과 정 은 여 간 힘 든

일 이 아 니 었 다 . 나 는 고 등 학 교 2 학 년

제 5 회 유 럽 성균 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1-EUS0866

한글 성명: 하사노바 제르베임

때 아버지께서 늘 돌아가셔서 가정 형편
 이 매우 어려워졌다. 어머니께서 늘 나와
 남동생을 힘들게 키우기 시작하셨다. 그
 래서 나는 과외는 커녕 학원조차 못
 다녔다. 입학시험 준비를 독학으로 만
 했다.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한국학을 공
 부하기에 반대하고 있었다. 이러한 상황
 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한
 국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. 포기하지 않
 으면 먼젓가는 꿈은 현실이 된다.
 우리 학과에서는 한국어 뿐만 아니라
 한국 문학, 지리, 역사, 경제 등 한국과
 관련된 과목들을 배우고 있어서 공부하
 면 공부할수록 한국의 숨겨진 매력을
 발견한다. 한국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
 배울수록 한국과 더 가까워지고 더 많
 은 것들을 배우고 싶어 된다.
 한국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
 한국에 가는 것은 제 꿈이었다. 그러던
 중 세종학당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

해 서 한 국 에 같 기 회 를 얻 게 되 었 다 .
 한 국 에 있 었 던 날 들 이 내 인 생 에 제 일
 행 복 했 던 날 들 중 하 나 이 다 . 한 국 을 직
 접 방 문 한 것 이 지 금 도 꿈 같 다 . 한 욕
 을 보 고 한 복 을 입 고 맛 있 는 한 식 들 을
 먹 고 한 지 를 직 접 만 드 는 것 이 아 주
 좋 았 다 . 한 국 사 람 들 도 정 말 친 절 해 서
 정 미 많 이 들 었 다 . 그 령 기 때 문 에 나 는
 한 국 에 방 문 하 고 나 서 한 국 의 매 령 에
 더 욱 빠 질 수 밖 에 없 었 다 . 그 때 한 국 은
 마 치 내 고 향 처 럼 느 껴 졌 다 . 한 욕 문 의
 “ 님 의 침 목 ” 에 “ 님 만 님 이 아 니 라
 기 름 것 은 다 님 이 다 . ” 라 고 쓴 다 . 한 국
 은 나 메 게 님 이 다 .
 그 래 서 한 국 에 서 대 학 원 을 다 니 고 싶
 다 . 한 국 대 학 원 에 진 학 해 서 국 어 국 문 학
 과 를 전 공 한 뒤 나 처 럼 한 국 어 , 한 국
 문 학 과 문 화 에 빠 진 사 람 들 에 게 한 국 어
 와 한 국 문 학 을 가 르 쳐 주 는 것 이 나
 의 꿈 이 다 . 그 래 서 한 국 에 대 한 모 든

제 5 회 유 럽 성균 한글 백 일 장

접수번호: 2021-EUS0866

한글 성명: 하사노바 제르베임

것 들 을 배 무 기 위 해 최 대 한 노 령 을 하
고 있 다 . 앞 으 로 도 한 국 과 나 의 인 면 을
더 깊 게 만 들 겠 니 다 .